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자가진단 척도 개발의 기초연구*

- 감마모델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of Self Diagnose Scale on the Healthy Family
- Uses the GAMMA Model -

여주대학
부 교수 김성희**

Dept. of Social Welfare,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 Kim, Sung-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감마모델과 가정생활의 경영구조 |
| II. 가정과 가정경영 | V. 결론 및 제언 |
| III. 가정생활 및 경영 실태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self-diagnostic indicator for measuring a healthy family by adopting the theme of "happiness", which has surfaced as the most interesting in many academic fields recently. Though the basic concept of a healthy family may be shared by everyone, the criterion of happiness varies from one family to another.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ool be made in such a way that every member of the family can check their health from a holistic perspective, rather than diagnosing health and happ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s. So, this study was aimed at diagnosing a family by using a tool named GAMMA model, so each family member can recognize problems and find the best options to solve it.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has tried to diagnose families by introducing the GAMMA model into domestic science for the first time.

Key Words : 건강가정(healthy family), 가정분석(family analysis), 감마모델(Gamma Model), 자가진단척도(Self diagnose scale), 삶의 질(quality of life)

* 본 연구는 2003년도 선도연구자지원과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 C00405)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성희 (dustinw@unitel.co.kr)

I. 서론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7년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49.7%는 '가정이 화목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73.1%)'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국가를 초월하여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미국 젊은이들은 행복하기 위한 요소로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20%)'을 선택하였으며, 가족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76%,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73%로 미국 젊은이들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닌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cafe.daum.net/코칭엔진, 2007).

이와 같이 시대가 변화해도, 세대가 달라도 가정구성원이 원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가정생활의 질이 사회의 건강성과 안정성에 중요하며(Gram, 1967; Stinnett, 1979; Zimmerman, 1972), 개별 가정구성원의 복리, 정신건강, 행복에도 중요하다는 사실(Stinnett, 1979; Ammons & Stinnett, 1980; Ca-sas 등, 1984)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이은주·유영주, 1995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정폭력, 높은 이혼율, 기러기 가족, 저출산,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가정파탄,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가정의 모습을 흔히 보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회 문제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면화된 기점은 1997년 외환위기로 볼 수 있다. IMF라는 심각한 재정적 역경을 겪으면서 가정의 위기 상황

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가정내 갈등이 고조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일체감을 증진시키는 가정도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은 가정의 부정적 측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건강성을 회복한 것이었다. 결국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의 긍정적인 측면, 즉 건강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건강성증진을 취지로 한 것이다. 법제정 이후 2004년 7월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달체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전국 6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내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재가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간의 차별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적, 종합적 단위(unit)로서의 가정과 가정의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예방적 건강성 강화를 추구한다는 데 있다. 즉 가정은 구성원들이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공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며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한 하나의 사회적 단위(unit)이므로(박미석·이경아, 2006)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가정구성원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적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 시카고대학의 Perlman에 의해 사회복지 실천모델로 제안된 문제해결모델과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표인 가정의 건강성증진 방안은 건강성을 저해하는 문제 상황을 인식, 진단하며,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주체가 전문가에서 가정구성원으로, 부분적인 문제해결에서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경영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변화되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구성원이 가정생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정경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연구자체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 실용화되는 것으로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총체적 진단 도구인 감마모형(GAMMA model)을 적용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정생활의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가정생활 경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영단위로서 가정을 전제한 후 선행연구들과 그 한계점을 고찰하고, 총체적 차원의 가정생활 경영 진단을 위한 모델로서 감마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감마모형에 의한 가정생활의 경영 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론 및 모델의 도입과 함께, 실용적인 가정생활의 경영 진단 도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II. 가정과 가정경영

가정은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통한 가정생활의 질 향상 및 나아가 사회생활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다. 이러

한 가정은 학문에 따라 주택과 같은 공간성이 강조되거나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사회적 단위, 혹은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의 소비, 저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단위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곳으로 이를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인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경영단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정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구성원들의 목표와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경영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가정생활이 달라지므로, 경영단위로서의 가정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박미석·김경아, 2006).

경영단위로서 가정은 구체적으로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며,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자원을 배분하고, 조직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정구성원들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궁극적인 가정의 목표를 추구

〈표 1〉 기업경영과 가정경영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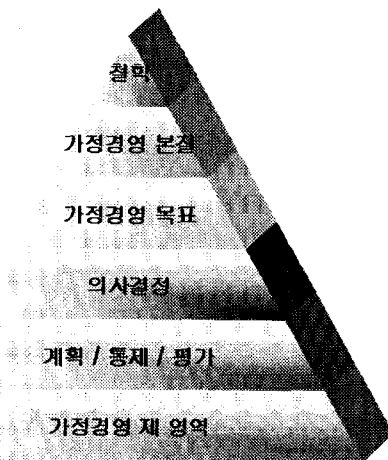
기업경영	비영리조직	가정경영
목표 수립	사명	가정의 목표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전략적 계획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가정구성원 관리
조직관리	이사회	가정구성원의 역할, 역할 조정
자본과 재산관리	재정	가정경제(재산 관리)
계획의 실행		의·식·주생활관리, 시간 및 동작 관리
섭외	모금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
평가	평가	평가

* 인사조직관리, 비영리조직 경영(김정련), 가정경영 원론(문숙재외 4인)의 내용을 토대로 조직화

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과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가정이 경영단위로서 인식되기 어려운 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가정이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기업경영과 가정경영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표 1>과 같다.

한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경영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가정경영은 가정철학과 가정경영의 본질을 다루는 본질 가치론적 차원의 가정경영과 가정경영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계획·통제·평가에 해당하는 가정경영과정, 그리고 의·식·주생활, 가사노동과 같은 가정경영의 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가정관리란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론 연구 등 좀 더 수단적 방법과 실행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가정경영이란 본질 가치에 근본을 두고 수단이 본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정경영은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계획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림 2> 가정경영구조



III. 가정생활 및 경영 실태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혹은 경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1960년대 초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서독에서는 농촌경제가 급격한 구조적 변동을 맞이하던 시대라서 가정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가정을 지도하고 상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가정분석론’이 개발되었다. 이 분석론은 가정경영학자들에 의해 이론의 정교함과 더불어 실용방안의 구체화가 거듭 발전되었으며, 농촌 뿐 아니라 도시,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적용 가능성까지도 연구되었다.

초기의 가정분석론은 가정생활 일부 영역에 대한 상담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분이 아닌 가정생활 전체에 대한 상담의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분석론을 발전시킨 학자가 Schweitzer(1968)였다.

Schweitzer는 가정구성원들이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배분하는 과정을 가정자원관리과정이라고 하였으며, 관리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정생활현상은 그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생활내용이라고 보았다. 개별가정은 가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구체적인 관리전략 등이 가정경영에 포함된다. 가정생활현상은 가정생활분석을 통해서 가시화되며, 이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해주고, 가정생활의 구조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목표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가정경영의 토대를 마련해 주게 된다.

‘가정분석론’은 인간 행동의 일부로서 가정

경영 행동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정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와 개별적, 사회적 생활양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면접과 기록(예: 가계부, 가사노동 일기, 주택 공간 배치도 등)의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서로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가정경영의 현 실태를 조명하도록 하였다. Schweitzer는 사회문화적·기술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제기되는 가정의 모든 구성요건이 ‘가정분석론’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생활형성을 위한 욕구수준과 이로 인해 일어난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경영 구조를 이루는 개개의 자료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첫째 부분은 분석 당시의 가정경영실태를 야기시킨 사회경제적으로 주어진 가정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경영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가족구조, 가족의 욕구수준, 가정의 입지조건 등이 해당된다. 이런 주어진 조건은 가정경영실태 분석에서는 이미 주어진 불변의 전제조건이다.

둘째 부분은 가정의 기능노동 분야에 대한 파악이다. 즉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사노동분야인 일상적인 의·식·주생활 관리, 구매, 저장, 가족관리 등의 노동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가정의 개개의 노동분야에 대한 욕구수준과 이 욕구수준의 실현을 위하여 주어진 작업조건 즉 기구설비수준을 가사노동 시간과 노동에너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가정의 개개의 노동분야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노동시간을 측정하였다.

셋째 부분은 가정의 노동경제실태에 대한 파악이다. 즉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총괄적인 노동요구 시간, 노동요구 시간의 노동시기별 분포 그리고 노동요구 시간과 노동자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부분은 가정의 경제실태에 대한 파악이다. 즉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원조달과 소비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주어진 가정소득의 크기, 소득의 유형 및 소득원과 가정의 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생계비구종 등을 관찰하고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한 자산상태를 분석하였다.

‘가정분석론’은 위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근거로, 개별 가정 특유의 경영실태를 분석된 자료의 객관화와 가정경제적 가사노동 분야와 시장경제적 분배분야와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개개 구성요소에 대한 직접적 관찰을 통해서는 그 구체적인 가정경영실태를 총괄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분석 자료의 객관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4개 부분에서 분석된 결과를 가정분석론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의 가정 평가표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가정의 경영실태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평가표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으로 주어진 조건, 가사노동의 요구수준, 기구설비수준, 생계비 구조, 노동요구 시간과 그 분포 등의 결과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가정평가표를 통하여 가정경영구조를 객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경영의 내적구성과 총괄적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평가표의 결과는 개개 가정과 다른 가정과의 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개 가정의 특수성과 보편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숙재, 1983: 151-152). ‘가정분석론’은 개별 가정구성원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가정상담자를 위한 훈련도구로 활용되었다.

Schweitzer에 의해 개발된 ‘가정분석론’은 가정을 환경과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도구로, 이는 개별 가정을 객관화시킴으로써 다른 가정과 자신의 가정의 경영실태를 객관

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그러나 그 지역,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 기준이 되는 자료가 우선 만들어져야 개별 가정의 가정경영평가표에 근거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 이때 만들어져야 하는 통계자료는 그 형성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사실상 평가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 형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정평가표 작성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가정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가치를 가졌다고 하나 전문가에 의해 가정경영의 실태와 문제가 진단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전문가에 의해 진단된 개별 가정경영의 문제와 해결방법의 제시는 가정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가정의 문제해결 능력과 자립능력의 개발 및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chweitzer에 의해 창안된 ‘가정분석론’을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문숙재(1983)는 “한국가정의 경영실태파악을 위한 가정분석론”의 연구에서 서독의 ‘가정분석론’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가정경영평가를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우리나라 실태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탐색적 연구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 이후 2000년이 되면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가정생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기영 외 5인(2001)은 지금까지 가정학 분야에서 가정생활 전체를 총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작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한 가정생활설계를 위해서는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의 원인을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및 환경과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생활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정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실상과 문제를 적절한 척도에 근거하여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즉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를 생활철학,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생활시간의 균형, 생활공간의 적합성, 물질 자원의 적합성, 가정관리의 촉진(역할분담과 의사소통, 의사결정), 그리고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철학,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생활시간의 균형성, 생활공간의 적합성, 물질자원의 적합성, 가계경제의 안정도, 가정관리의 촉진, 그리고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으로 구분하여 8개 영역으로 가정생활분석을 위한 진단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이후 송혜림의 4인(2002)은 체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설계의 진단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가정생활이 처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틀을 설정하는 단계를 진단으로 보고, 진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의 기준을 마련한 다음 이 진단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생활을 생활시간 영역과 물질자원 영역, 가계경제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가정생활영역의 실태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표본이 995명에 불과하여 그 대표성에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표

본추출의 과정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대표성의 진의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송혜림 외 4인의 연구 또한 가정구성원이 스스로 개별가정의 문제를 찾아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전문가가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진단이다.

가정생활의 실태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송혜림·이승미(2003)의 연구로 이어진다. 이들은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에서 가정생활의 영역화, 분석을 위한 가정생활의 영역별 항목 선정, 진단을 위한 기준 선정을 구분하였다. 가정생활의 영역은 가정경영 영역, 생활시간 영역, 생활공간 영역, 소비재 및 내구재 자원 영역, 가계경제 영역,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영역, 주부정체감과 가족원의 심리적 건강, 노후준비 영역, 생활목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체계적 접근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진단과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 자체가 많지 않고, 실제로 가정생활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해 기초적인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제진단의 주체가 전문가로 전문가가 가정경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형태의 연구들로서 이런 연구들은 가정구성원들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구성원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구성원들은 스스로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강점관점에 입각하여 가정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정생활을 진단하는 자가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IV. 감마모델과 가정생활의 경영구조

1. 감마모델의 적용 배경과 모델의 특징

기업은 기본적으로 설립목표가 이윤추구인 영리조직이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의 경영도 이루어졌으나, 점차 전문화, 조직화되어가면서 기업은 조직의 문제를 진단받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최소비용, 최대생산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진단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으나, 최근에는 내부 조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대안모색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조직원들이 전문가에 의해 모색된 대안을 선택하여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직원 스스로의 주체적 문제진단과 대안모색이 그 효과가 크며, 궁극적으로 조직 내적 힘을 강화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1950년대 시카고 대학의 Perlman이 문제해결중심의 실천모델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잠재능력을 인정하였으며, 가족치료분야에서는 1980년대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이론이 정립되면서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도 Martin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

을 찾아 가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를 문제를 지닌 사람으로 보는 문제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 관점의 차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가정학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가정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때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서 체계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가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가정경영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가정구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건강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정 내적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6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감마모델(GAMMA model)¹⁾은 가정생활의 경영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감마모델(GAMMA)은 Das Ganzheitliche Marketing Management Modell의 약자로서 30여년에 걸쳐 카퍼(Ludwig Kapfer)가 개발한 비영리 조직체의 총체적인 경영모델이다. 감마모델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 비전을 함께 찾아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철저한 인간존중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감마모델은 개발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정, 보완되어 비영리조직체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진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비영리기관에서 감마모델을 경영진단에 적용하는 이유는 감마모델이 갖는 장점 때문이다. 감마모델을 이용하면 외부단체에 조직의 경영진단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단체장 혹은 구성원들 스스로 단체의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규칙적인 진단으로 시대의 변화에 알맞은 경영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김성자, 2005).

감마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성을 들 수 있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인구통계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의 새로운 필요와 욕구의 발현,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야기되므로 조직의 운영자는 늘 총체적인 사고를 통해 조직경영을 해야 한다. 이는 비단 비영리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구성원들의 욕구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경영에 있어서 총체적 사고가 요구된다. 가정의 건강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총체적 경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유연성이다. 비영리 조직의 경영 구조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직의 존속은 효율(efficiency)이 아니라 적응력(adaption)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므로 조직 역시 그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중요한 환경의 변화를 감시, 해석하기 위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직의 기회에 가장 잘 적응

1) 감마모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에 한국 비영리단체의 단체장 15명이 오스트리아에서 카퍼와 함께 단체운영의 모델을 연수받은 것이 계기였다. 연수를 다녀온 이 후 15명의 트레이너들은 10여년 동안 감마모델을 한국의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에 도입하여 경영구조를 자가진단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비영리조직체의 변화를 초래 하였다.

하도록 그 이념, 목적, 전략, 조직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어 가면서 준비하고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은 언제나 변화하는 시장을 고려하고 목표점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라은숙, 1999: 129).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환경에 대한 개방적 체계로서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적응력이 요구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은 경영의 목표를 바꾸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황성을 들 수 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며 조직은 날마다 계속 발전되어 간다. 경영자는 시장의 변화와 거기에 전략적으로 적응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한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은 현실 상황 속에 있는 개별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늘 사회적 상황에 맞는 조직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총체성, 유연성, 상황성의 감마모델의 특징은 비영리조직이면서 경영단위로서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더욱이 가정이야말로 기본 철학과 이념이 인간존중이며, 문제를 자가 진단하며, 대안을 스스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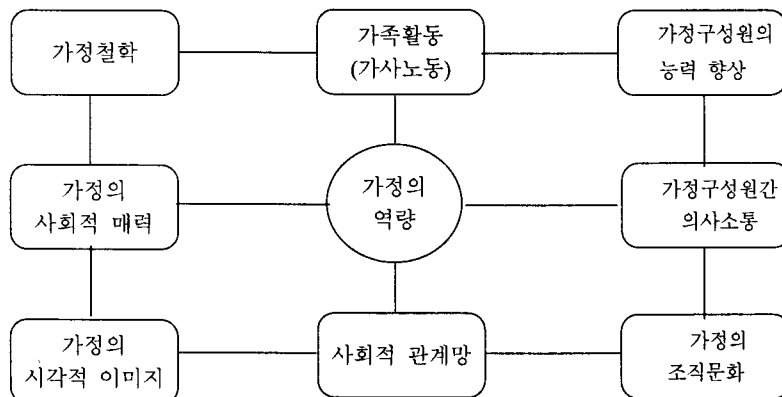
색함으로써 가정구성원의 내적 힘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건강가정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경영단위로서의 특징과 경영구조는 다시 감마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므로 감마모델을 적용하여 가정생활의 경영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2. 감마모델에 의한 가정생활의 경영구조 영역

감마모델은 조직의 경영구조를 조직 구성원이 진단할 수 있는 조직의 철학, 생산품, 조직원의 능력과 자질, 내부의사소통, 외부관계망, 조직의 질, 조직의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매력이라는 8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은 조직의 철학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조직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마모델의 8가지 경영 구조 영역을 토대로 가정생활의 경영구조 영역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체계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구성원은 하나의 요소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위체계가 형성되며, 하위체계는 가정이라는 체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론적 접근에 의해 가정구성원은 자신의 철학과 자

<그림 3> 감마모델의 8가지 경영구조 영역을 적용한 가정생활의 경영구조 영역



원을 어떻게 다른 가정구성원과 교환하는가에 따라 가정경영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마모델은 개별 가정구성원 각자의 삶에 대한 자가진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 관점에서 가정경영의 실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가정철학

가정은 가정구성원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철학이 있을 때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 구성원은 혈연이 아닐 수 있으며, 그 형태도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하다. 또한 가정구성원이 두 명 이상이게 되면 인간의 본연의 특성 상 욕구와 이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때 가정구성원이 가정의 존재이유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면 문제의 해결방법과 지향해야 할 방향에 일관성이 있게 된다. 즉,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구성원들이 가정의 공동 철학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가정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개발하고 추구한다면 더욱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구성원들의 철학을 점검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경영의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정철학을 자가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 나, 가정구성원의 존재이유
- 가정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행복
-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 가정구성원의 사명 등

2) 가족 활동(가사노동)

조직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이다. 영리조

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매력을 느끼는 생산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존속이 어려우며, 현대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별적인 생산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익준, 1999: 277). 조직이 제공하는 생산품은 세 가지의 기준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이 원하는 상품인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마주치는 부분에 이상적인 시장이 존재하며, 이때 조직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조직 구성원의 욕구는 해결되며 공동의 사회가 원하는 것도 고려하게 된다(Ludwig kapfer, 1992: 53).

가정구성원은 가정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이는 가정구성원의 행복과 관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가정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생산해 내는 재화 및 서비스가 가사노동이다(임정빈외 4인, 1994). 가사노동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가정 내 활동으로 가정구성원들의 가치와 철학에 의해 자급자족형, 용역형, 시장의존형 등으로 구분되며,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가정구성원들은 가사노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며, 만족 정도에 따라 가정에 애정과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가족활동(가사노동) 수행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 가정의 의·식·주생활, 여가생활과 같은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
- 가정구성원을 위한 특별활동
- 가족활동으로 인한 이윤과 비용 등

3) 가정구성원의 능력 향상

한 조직의 역량은 사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어진 인적 자원으로 달성한 생산성은 실제로 그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현영하, 1997: 276).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훈련, 경험, 자질은 고객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며,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조직에서는 흔히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성규탁, 1985: 292, 1994: 303).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구성원들의 건강성 정도는 가정구성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구성원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협력해 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가정구성원들 개개의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해 나간다면 가정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가정의 건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때 가정구성원들의 능력과 자질은 가정구성원들의 올바른 의식, 긍정적 태도,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삶의 기술을 의미한다. 가정구성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균형을 이룰 때 가정구성원들은 조화로운 성품을 지닌,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는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주도하게 할 것이다.

가정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 가정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것
- 가정구성원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의식 교육
- 가정구성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교육
- 가정구성원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영적 영역의 능력 등

4) 가정구성원간 의사소통

가정의 건강성에는 의사소통이 많은 기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은 가정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의사소통이 직접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솔직하지 못하다. 또한 가정구성원 간에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인간적이지 못하며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반명 생기 있고 건강한 가정은 가정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의사소통이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명확하고, 가정구성원간 규칙이 융통성 있으며, 인간적이고 적절하며 변화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은 가정의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의사소통의 세 가지 측면, 즉 효과성, 효율성 및 사기(성규탁, 1994:62)는 가정에서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가정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가정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일부분으로,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사결정과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 조성에 필수적이다.

둘째, 효율성은 가정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높아진다. 가정구성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은 가정의 건강성에 중요하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기(moral)는 가정구성원의 자존감 향상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가정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한다면 그들은 가정구성원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히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인재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가정구성원간의 공격, 거부, 비판적인 의사소통은 서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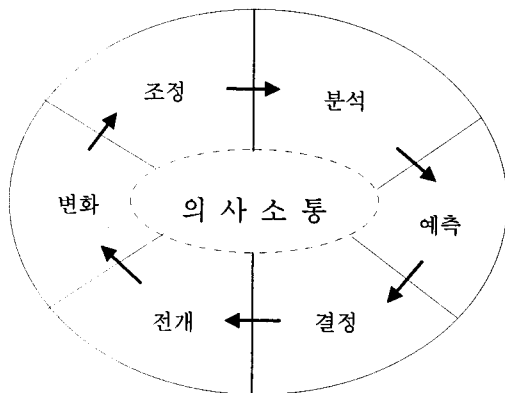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가능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핵심을 이룬다.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분석 → 결과의 예측 → 실행할 내용의 결정 → 일의 전개 → 활동 후의 변화 → 목적에 대한 점검으로서의 조정과 평가로서 기능은 모두 의사소통의 원활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구성원들이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관계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가정구성원간 의사소통은 다음의 내용으로 점검 가능하다.

- 가정구성원의 의사소통 유형
- 가정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단어
- 문제발생시 대화를 나누는 상대
- 가정구성원의 대화 시간 등

(그림 4) 감마모델에서의 의사소통
(카퍼, 1999, p98)



5) 가정의 조직문화

조직의 구조는 특히 구성원들의 역할분담과 일의 실행에 의해 파악된다. 이러한 조직의 구조와 업무분담 등은 조직 평가의 주요 기준이

다. 따라서 조직경영에서는 조직의 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의성과 자발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각각의 권한과 책임 정도, 적절한 권력의 분배, 자원의 배분, 변화가 필요한 부분, 일의 결과성에 대한 정당한 분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의 역할구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가정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및 자원배분과 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가정은 수직적 구조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라야 했다. 그러나 가정의 구조는 이미 수직의 구조에서 수평의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분담과 가정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한 자원배분, 그리고 가정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가정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제한된 자원으로 가정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가정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가정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자원의 배분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의 조직문화는 다음의 내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가정구성원들의 역할분담
- 가정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유형
- 가정구성원의 경제적 자원 배분
- 가정구성원의 생활시간 사용 등

6) 가정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망

비영리조직체와 영리기업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전형적인 비영리 조직체는 영리기업보다 훨씬 많은 대내외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과 그 관계들이 비영리조직체의 존폐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도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체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며 존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친족, 친구, 지역사회 속에서 외부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가정구성원들은 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사회와 개방적인 연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망은 가정을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인적, 물질 나눔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은 다음의 내용으로 점점 가능하다.

- 가정구성원들의 친척, 이웃, 지역사회
- 가정구성원들의 사회적 자원과 관계 정도
- 사회적 관계망의 균형과 조화
- 사회적 관계를 통한 부가이윤

7) 가정의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란 조직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모습을 말한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조직은 외부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조직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외부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의 색채와 디자인은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조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보다 더 인정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경영에서는 조직의 외관 뿐 아니라 홍보물, 로고 등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조직이 주는 분위기를 활용하게 된다. 분위기란 구체적으로 행복감, 안심, 친숙함, 경외감과 같은 특정의 효과를 고객에게 창조 또는 강화시키는 의식적인 공간 디자인을 의미한다(정익준, 1999:368).

말하자면 포장이 내용을 대신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는 시각적으

로 드러나는 모습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각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 가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심리작용을 이용한 감화를 주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디자인을 취하여 주어진 목적과 내용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민 경우, 1998 : 100). 이는 조직의 철학, 이념, 유용한 서비스 수행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윤택제의 기능을 해준다.

시각적 이미지를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환경이 될 수 있다. 가정은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등이 반영된 그들만의 시각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안의 정리정돈 상태, 가구의 배치,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등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온화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가정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가정환경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정의 조화로운 이미지, 행복, 그리고 가정구성원들의 건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시각적 이미지는 다음의 내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가정의 대표색
- 가정 철학과의 일치성
- 가정구성원의 상징적 이미지
- 주거환경

8) 가정의 사회적 매력

과거에 가정은 사적 조직으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구성원의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가정구성원들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의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아파트 단위별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집합주택에 사는 사람

들끼리 동호회를 결성하여 사회와 소통한다든지,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가정구성원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개별 가정 단위에서 공동체 단위로 가정구성원의 의식이 변화해 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구성원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 가정의 사회적 매력을 대표하는 가정구성원들의 사회적 기여는 가정 특유의 이미지와 가정의 고유한 매력으로 연결되며, 이는 한 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는 가정구성원들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 고유의 매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은 가정의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의 사회적 기여는 다음의 내용으로 점검 가능하다.

- 가정구성원의 자부심
- 가정구성원들의 매력
- 가정구성원들의 사회적 기여 참여도(가족 봉사원 참여도)
- 다른 가정구성원의 인정 등

이상에서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경영 진단의 도구로 감마모델이 유용한 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마모델의 8가지 경영 구조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감마모델의 유용성을 좀더 명확히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가정경영구조와 가정생활 및 경영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건강가정의 개념과 비교,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가정경영의 영역과 건강가정 개념과 비교해보면, 가정경영의 영역은 가정의 목표수립과 계획에서 시작하여 하위생활 영역의 자원관리와 가정구성원 관리,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경영의 평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를 건강가정의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와 평가 부분이 제외된 모든 가정의 기능이 건강가정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경영과 건강가정의 개념은 보편적이라 볼 수 있다. 가정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경영되어야 하며, 가정을 가정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정경영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독의 Schweitzer는 가정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개별가정을 분석,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기영 외 4인은 가정생활을 7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송혜림·이승미는 중년의 전업주부 가정을 진단하기 위해 가정경영을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마모델은 선행연구에 비해 가정경영 영역과 건강가정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분석의 틀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경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영역을 제시하는 적용성에 무리가 없는 모델이다. 감마모델은 8가지 경영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 8가지 경영 영역을 가정생활의 경영구조에 적용하여, 가정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관련 질문들을 개발해낸다면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자가진단 척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감마모델의 8가지 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가정 상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가정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책임지

(표 2) 가정생활의 경영 구조 진단을 위한 영역 비교

가정경영 및 건강가정		가정생활 구조 진단의 영역			
가정경영 영역	건강가정 개념	Schweizer의 가정분석론	이기영 외 4인	송혜림·이승미	카퍼의 감마모델
가정의 목표 수립	건강한 시민의식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 파악 - 가족구조, 욕구수준, 가정의 입지조건	생활철학	생활목표 영역	가정철학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의식주생활 관리, 시간 및 동작 관리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휴식 및 여가공유	가정의 기능노동분야 - 의·식·주생활 관리, 구매, 저장, 가족관리 등		가정경영 영역	가족 활동 - 가사노동
가정구성원의 역할, 역할 조정	가족역할 공유	가정의 노동경제실태 분야 - 노동요구 시간, 노동요구 시간의 노동시기별 분포, 노동요구 시간과 노동자산과의 관계	생활시간의 균형성	생활시간 영역	가정의 조직문화 - 역할분담, 물질, 인적 자원관리, 의사결정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민주적 평등가족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	가계경제 영역	
	합리적 자원관리				
가정경제 (재산관리)	경제적 안정	가정의 경제실태 분야 - 자원조달, 소비구조 (생계비 구조) 등			
가정구성원 관리	자녀의 성장 지원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주부의 정체감과 가족원의 심리적 건강	가정구성원의 능력 향상
	열린 대화		가정관리의 촉진 -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가정구성원간 의사소통
			생활공간의 적합성	주거공간 영역	가정의 시각적 이미지
	가정문화 창조 유지 자원봉사 참여				가정의 사회적 매력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					가정의 사회적 관계망
평가					

는 대화조정 기술(Moderation)을 사용한다면, 가정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많은

역기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및 확산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제도적, 실천적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들과 차별화되며, 건강가정지

원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될 수 있는 사업은 가정생활 내지 경영실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며, 진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가정의 건강성이 부분적인 가정생활의 개선으로는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때 가정 외부의 전문가가 아니라 가정구성원 스스로가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그 효과와 성과는 배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는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가정의 건강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정생활과 경영실태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용적인 진단평가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연구의 진단의 틀이 전문가 중심의 진단으로 가정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진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경영진단을 위한 유용한 도구인 감마모델을 도입하였다. 감마모델에서는 조직의 경영구조를 조직의 철학, 생산품,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자질, 내부의사소통, 외부관계망, 조직의 질, 조직의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매력이라는 8 가지 영역에 의해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감마모델의 8가지 경영 영역을 적용하여 가정생활의 경영구조를 가정철학, 가족활동(가사노동), 가정구성원의 능력향상, 가정구성원간 의사소통, 가정의 조직문화, 가정의 사회적 관계망, 가정의 시각적 이미지, 가정의 사회적 매력이라는 8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생활 및 경영분석을 위한 영역과 비교, 제시함으로써 감마모델의 적용 근거와 타당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8 가지의 가정생활

의 각 경영 영역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자가진단 척도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된다.

앞으로 이 8가지 가정생활의 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구성원이 스스로 가정의 상태를 파악하며, 앞으로 해야 할 바를 결정할 수 있는 관련 질문들을 개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자가진단이 용이한 진단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갖는 제한점을 인식하고, 감마모델을 적용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감마모델을 적용하여 가정구성원의 자가진단 평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례분석과 실증적 연구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건강가정기본법.
- 2)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안.
- 3)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 4) 구혜령(2005). 가정생활진단프로그램. 바람직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소개 및 실무교육 세미나 자료집, 103-109.
- 5) 김광숙(1996). 감마모델의 女性會館運營適用에 관한 研究.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성자(2005). 감마모델을 이용한 비영리마케팅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7) 김정련(2005). 비영리조직 경영. 출판사 아르케.
- 8) 동아일보. “가정목표 세우니 가정이 힘차네

- 요”. 2000. 11. 14.
- 9) 루드비히 카퍼 저, 김재경 역(2001).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한국감마연구소.
 - 10) 루드비히 카퍼 저, 한국감마연구소 역 (1999). 감마모형. 한국감마연구소.
 - 11) 루드비히 카퍼 저, 한국감마연구소 역 (1999). 교회와 마케팅. 한국감마연구소.
 - 12) 모수미, 최정화, 이기영, 김외숙(1994). 가정학원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13) 문숙재(1983). 한국가정의 경영실태파악을 위한 “가정분석론”. 대한가정학회지 21(4), 149-162.
 - 14) 문숙재 외 4인(1996). 새로보는 가정경영. 학지사.
 - 15) 민경우(1998).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 16) 박미석, 김경아(2006).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건강성: 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8), 33-45.
 - 17) 송혜림 외 4인(2002). 체계적 접근법에 의거한 가정생활설계의 진단기준 마련 및 진단기준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13-126.
 - 18) 송혜림, 이승미(2003).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 :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605-618.
 - 19) 유영주(1999). 건정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20) 이기영 외 5인(2001). 가정생활구조분석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37-148.
 - 21) 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22) 임미경(2002). 장애인재활시설에서의 직원 교육훈련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 : 감마모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임정빈 외4인(1994). 가정관리학. 학현사.
 - 24) 정익준(1999). 비영리조직 마케팅. 영풍문고.
 - 25) 지영숙, 이영호(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33-250.
 - 26) 최미경(2001). 감마모형(총체적 마케팅 관리모델)의 적용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2000),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생활 진단프로그램 개발.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연구보고서.
 - 28) DeCa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 Bacon Inc.
 - 29) Gross I., E. W. Crandall & M. M.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a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 30)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31) Stinnett. N. Walters. J, Kaye(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32) Stinnett. N. Chesser. B, DeFrain. J, Knaub. P(1980). Family Strengths-Positive Models for Family lif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접수일 : 2007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2일